청소년비행에 대한 생애과정이론과 잠재적 특성이론의 경험적 비교

노 성 호*

국문요약

본 논문은 범죄경력을 설명함에 있어서 상반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생애과정이론과 잠재적 특성이론의 내용 중에서 경험적인 비교가 가능한 주장들을 추출하여 패널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비교함으로써 어떤 이론의 경험적 적합성이 더 뛰어난가를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경험적 검증을 위해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하는 청소년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3개년간 추적조사한 초등학교 4학년 패널과 4년간 추적조사한 중학교 2학년 패널을 모두 분석하였다.

경험적 분석결과 잠재적 특성이론과 생애과정이론 중에서 전반적으로 생애과정이론이 경험적으로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각 이론을 대표하는 연구모형의 적합도의 비교, 사회환경변인이 지위비행과 범죄행동에 미치는 경로계수의 유의도 등의 검증결과는 생애과정이론의 주장이 잠재적 특성이론의 주장보다 더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생애과정이론의 연구모형이 잠재적 특성이론의 연구모형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에 대한 애착, 부모의 감독, 학교성적, 비행친구와의 접촉 등의 변인들은 자기통제변인을 모형에 포함시킨 후에도 여전히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사회환경요인들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도 비행시기에 따라서 차이를 보여, 초등학교 때에는 부모에 관련된 변인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치고, 중학교 때에는 학교와 비행친구에 관련된 변인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 부분에서도 생애과정이론이 지지를 받았다.

* 전주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사회학박사

Ⅰ. 서 론

범죄에 대한 관심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범죄를 설명하는 이론의 발달로 이어졌다. 과거의 대표적인 범죄학이론들은 대부분 한 시점에서 범죄행동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원인의 횡단적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은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러한 요인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설명할 수 있지만, 범죄행동이 변화하는 상황이나 범죄를 설명하는 원인들의 시간적인 변화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최근에는 종단적인 자료의 수집과 연구방법의 발전으로 인해 범죄의 발전과정과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 및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노력을 발전이론적 접근이라고 부른다. 발전이론은 범죄가 시작되고 지속되거나 또는 종료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발전론적인 요인을 찾고, 설명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발전이론적 접근은 다시 두 개의 대립되는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애과정이론과 잠재적 특성이론이다.[1)]

생애과정이론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범죄성을 다양한 개인적 특성, 속성(형질), 사회적 경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동적인 과정으로 본다. 사람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여러 생애과정을 거치면서 인식이 변화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행동양식이 변화한다. 이 이론에서는 범죄등을 포함하는 인간의 행동은 사회적, 심리학적, 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복수의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사람들이 생애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하고, 가족, 직업, 친구 등의 환경적 요인들이 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잠재적 특성이론은 인간의 성장과정은 주요 특성, 즉 태어나면서 또는 아주 어릴 때 습득하는 주요 속성에 의해서 통제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요 특성은 지속적이며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범죄행동의 증가 또는 감소는 범죄기회와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같은 외부적인 힘의 영향에 의해서 결정된다. 잠재적 특성이론에서는 개인의 주요 특성

1) 대립적인 입장에 학자에 따라 다양한 명칭을 부여하는데, 생애과정이론을 상황의존론, 잠재적 특성이론은 모집단이질론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는 하나의 종합적인 이론이라기보다는 유사한 시각을 가지고 비슷한 내용을 주장하는 여러 학자들의 이론의 묶음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은 퍼스낼리티, 지능, 유전적 요인 등이며, 사람들은 변화하지 않고 단지 범죄의 기회만 변화한다고 생각하며, 성장할수록 범죄의 기회가 줄어든다고 본다. 또한 초기의 사회통제 또는 적절한 양육을 통해서 범죄적 성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두 이론은 범죄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노력에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각각의 이론을 지지하거나 거부하는 경험적 증거를 찾기 위한 노력이며, 다른 하나는 두 이론이 주장하는 대립적인 내용 중에서 어떠한 것이 더 적합한가를 비교함으로써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이론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내려는 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청소년 비행을 설명함에 있어 생애과정이론과 잠재적 특성이론 중에서 서로 경험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주장들을 발췌해서 비교함으로써 어느 것이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가를 비교하고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 각 이론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모형을 구성한 후에 어느 연구모형이 더 적합한가를 비교하며, 두 이론의 주장 중에서 서로 대비되는 변인간의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상대적 적합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패널자료를 사용하며,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종단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Ⅱ. 이론적 논의 및 기존 연구결과 소개

1. 생애과정이론

인간이 태어나서 사회에서 성장하며 살아가는 동안 여러 단계의 생애과정을 거치게 된다. 개인의 생애에 걸쳐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과 범죄행동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을 생애과정이론이라고 부른다. 개인이 일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부정적인 사건이나 경험들이 그 사람의 범죄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한 개인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매우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성장의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성향 역시 안정적이지 않고, 일정하지도 않으며, 변화가 가능하다. 긍정적인 생애경험은 일부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를 그만두게 할 수 있으며, 부정적인 경험은 그들의 범죄행동을 재개하도록 할 수 있다.

생애과정이론은 다중의 사회적, 개인적 경제적 요인이 범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듯이 범죄 참여도 변화한다고 본다. 아동에서 청소년, 청소년에서 성인, 미혼에서 기혼으로 생애의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질 때 사회적 상호작용의 성격도 변화한다. 그러한 발전을 통해서 행동도 변화한다.

생애과정이론에서는 1) 비행을 야기하는 원인(사회유대 등)들과 비행행동이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한다고 보는 Thornberry(1997)의 상호작용적 이론, 2) 청소년기에 범죄나 비행이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성인이 되면 범죄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Moffitt(1993)이 구분한 생애지속범죄자(life-course persistent offender)와 청소년기 한정 비행자(adolescence-limited delinquent)의 유형구분, 3) 아동기나 청소년기 초반과 같이 어린 나이에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을 시작하는 조기비행자(early starters)와 청소년기 중기나 후기, 즉 상대적으로 늦게 범죄를 시작하는 후기비행자(late starters)를 구분하고 이 두 집단은 저지르는 범죄의 유형, 범죄를 하게 되는 원인, 성인범죄자로의 발전과정 등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하는 Patterson의 강압이론(Patterson et al. 1989), 4)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는 사회유대의 형태와 강도는 사람이 살아가는 생애과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특정 범죄자가 범죄를 지속하거나 범죄를 종료하는 과정에 미치는 생애과정에 따른 사회유대의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Sampson과 Laub(1993)의 이론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생애과정이론들 중에서 잠재적 특성이론과의 비교를 위해서 가장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이론이 Sampson과 Laub(1993)의 이론이다. 그들은 사회유대이론의 기본 내용을 받아들인다. 즉 개인들간에 맺고 있거나 개인과 사회제도간에 맺고 있는 사회유대를 중요시한다. 그런데 개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회유대의 형태는 생애단계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에는 가정, 학교, 친구에 대한 사회유대가 중요하지만, 성인

이 되면 직장, 결혼, 동료에 대한 사회유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특정 개인이 범죄를 지속하는가의 여부는 생애단계별 사회유대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그들은 어렸을 때 형성된 범죄성향에 있어서의 개인별 차이는 범죄지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개인이 성장하면서 맺게 되는 사회유대의 정도라고 보았다. 즉 어렸을 때 이상징후, 행동장애, 낮은 자기통제력 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지속적인 범죄자로 발전한다고 볼 수 없고, 혹시 이들이 만성적인 범죄자로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어렸을 때 보인 범죄성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의 비행행동으로 인해서 그 이후의 사회유대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같이 어렸을 때 형성된 문제성향 또는 공격성향이 범죄에 미치는 직접 효과를 인정하지 않은 대신에, 전환점과 누적적 불이익이라는 다른 주요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범죄적 소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면 이로 인해서 사회유대가 영향을 받고 사회유대의 약화 또는 단절로 인해서 차후 범죄의 개연성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어렸을 때 형성된 개인성향이나 심리적 특성보다는 초기의 사회적 행동이 이후의 발전단계에서 맺게될 가족관계, 학교생활, 동료관계, 직업선택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중요시하였다. 조기비행으로 부모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학업에 실패하고, 동료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우울심리를 경험하고, 비행친구와 교제하는 등의 이차적 사회유대문제가 유발되며 이후의 반사회적 행동은 이같은 누적적 불이익에 의해서 더욱 큰 영향을 받게 된다.

2. 잠재적 특성이론

잠재적 특성이론은 범죄경력을 설명함에 있어서 앞에서 논의한 생애과정이론과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이론은 범죄를 설명함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요인에 주목하며, 개인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요인은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범죄경력 발전의 어떤 과정에서도 이 요인만으로 범죄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간에는 이미 형성된 범죄성향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며, 범죄나 범죄발전의 과정은 이러한 차이에 의해 설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일부 사람들은 범죄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속성이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성향 또는 잠재적 특성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주 어렸을 때 형성될 수도 있으며,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으로 남아 있다. 잠재적 특성으로 간주되는 것은 지능의 결함, 손상된 또는 충동적인 인성, 유전적인 비정상성, 두뇌의 물리적·화학적 작용, 약물·화학약품·상처 등과 같이 두뇌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영향이다.

잠재적 특성이론에서는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범죄일반이론이 가장 대표적이다. 범죄일반이론에 따르면 범죄성향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범죄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법을 위반할 확률이 훨씬 높다.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성향은 사람의 일생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따라서 한 개인에게 있어서 범죄행동의 빈도의 변화는 순전히 범죄기회의 변화의 함수이다. 즉 개인의 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은 변화하지 않으며, 단지 범죄기회만이 변화한다. 이러한 범죄성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개인의 자기통제(self-control)이다. 즉 자기통제가 강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고 반면에 자기통제가 낮은 사람은 그만큼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자기통제의 6개의 구성요소는 기질(temper), 위험감수(risk-taking), 자기중심성(self- centeredness), 충동성(impulsivity), 단순한 일의 선호(preference of simple tasks), 육체적 일의 선호(preference of physical activity)이다.

자기통제가 낮은 이유는 어렸을 때 경험한 부절한 자녀양육방식 때문이다. 즉 부모의 부적절한 자녀양육으로 10-12세 이전에 낮은 자기통제가 결정되며, 이렇게 형성된 자기통제는 어렸을 때의 수준 그대로 유지되며 그 사람의 일생동안 크게 변하지 않고 안정성을 유지한다.

3. 두 이론간의 논쟁점

첫 번째 논쟁점은 자기통제가 범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가의 여부이다. 잠재적 특성이론에서는 당연히 자기통제가 범죄를 설명하는 중요한 그리고 유일한 원인이다. 반면 Sampson과 Laub(1993)은 어렸을 때 형성된 문제성향 또는 공격성향이 범죄에 미치는 직접 효과를 인정하지 않으

며, 대신에 이러한 문제성향으로 인해서 사회유대 등이 약화됨으로써 범죄를 저지른다는 간접적인 영향만을 인정한다.

경험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Gottfredson과 Hirschi의 일반이론에 따라 자기통제가 범죄를 설명한다는 주장이 지지를 받았다. 연구결과들은 자기통제력이 비행이나 범죄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보여준다(Grasmick et al., 1993). 한편 비행친구와의 접촉 등의 요인을 통제해도 자기통제가 비행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남아 있어서 일반이론이 지지받는다는 결과들도 제시되고 있다(Evans et al, 1997; Wright et al, 1999; Baron, 2003)

두 번째 논쟁점은 사회환경변인, 즉 청소년기의 부모와의 관계, 학교적응 정도, 친구들과의 관계,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범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이다. 생애과정이론과 잠재적 특성이론이 가장 분명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잠재적 특성이론에 따르면 자기통제가 비행 뿐만 아니라 사회유대, 비행친구와의 접촉 등과 같은 변인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기통제가 낮은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유대가 약화되고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증가한다. 그렇지만 기존의 범죄이론에서 범죄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았던 가정, 학교, 친구등의 요인들이 더 이상 비행이나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요인들과 비행의 관계는 허위상관관계로서, 자기통제요인을 통제하면 이러한 사회환경적 요인들과 비행의 관계는 사라진다는 것이 일반이론의 주장이다. 즉 잠재적 특성이론에서는 결혼, 친구관계, 직업 등과 같은 생애과정중의 사건들은 자기통제를 포함시키면 범죄행동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본다(Piquero and Bouffard, 2007).

생애과정이론의 주장은 이와 반대로서, 자기통제의 영향을 받는 사회환경적 요인이 비행이나 범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을 거부한다. 생애과정이론에서는 사람들이 생애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사건이나 경험들이 그들의 비행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부정적인 경험은 범죄를 야기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경험은 범죄를 중단시키기도 한다.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변화를 중요시하며, 이러한 변화가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Thornberry, 1987; Loeber and LeBlanc, 1990; Patterson et al, 1992; Sampson and Laub, 1993). 즉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들이 비행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한다. 생애과정이론에서도 어려서의 경험들이나 자기통제가 사회유대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렇게 형성된 사회적 유대가 비행의 원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어려서 자기통제가 낮은 사람은 성장기에 비행친구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이유로 청소년비행 혹은 성인에 되어서 범죄를 저지른다.

경험적 연구결과들은 자기통제가 사회유대변인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Nagin and Paternoster, 1993; Evans et al., 1997; Chapple, 2005). 한편 사회환경적 요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에서는 대체로 생애과정이론을 지지하는 연구결과들이 많다. Chapple(2005), Paternoster와 Brame(1997)은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자기통제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매개한다고 주장하였으며, Simons와 동료들(1998)은 어려서 문제행동의 징후가 있는 아이들이 가정,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고 비행친구와 사귀게 됨으로써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하며, 비행친구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Wright와 동료들(2001)은 자기통제와 비행친구가 상호작용효과를 가짐을 주장하였는데, 낮은 자기통제를 가진 사람이 비행친구와 접촉하는 경우에 한해서 범죄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자기통제가 낮다고 하더라도 비행친구와 사귀지 않는 경우에는 비행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세 번째 논쟁점은 생애과정이론에서 주장하는 내용으로서 비행시기에 따라서 비행의 원인이 달라지는가 하는 점이다. 잠재적 특성이론에서는 자기통제만을 범죄의 원인으로서 인정하고, 사회유대 또는 비행친구 등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없다.

생애과정이론은 사람들의 성장단계마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이 변화함을 인정한다. 어렸을 때에는 가족관계가 가장 영향력이 크지만, 청소년기에는 학교와 친구관계의 영향력이 지배적이고, 성인기에는 직업적 성취가 결혼관계가 가장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2] 이와 같이 사람들은 그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다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생애의 한 단

2) 예를 들어 청소년기에는 문제행동을 저지르던 아이들도 성인이 되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결혼하게 되면 그로 하여금 범죄를 그만두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반대로 체포된 경험이 있으며,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는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어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는데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범죄경력을 발전시킬 위험성이 높다.

계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그 이후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논리는 청소년의 생애과정에 따라서 비행의 사회적 원인이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Thornberry, 1987; Patterson et al., 1989; Moffitt, 1993; Thornberry et al, 1991, 1994). 비행을 시작하는 시기에 따라서 비행소년집단이 구분되며, 그들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Moffitt(1993)은 비행소년을 생애지속범죄자와 청소년기한정비행소년으로 구분하였고, Patterson(1989)은 조기비행소년과 후기비행소년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연령에 따라서 비행의 원인이 가지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으며, 어린 시절의 문제행동이나 비행에는 부모의 부적절한 훈육과 부모와의 애착 결여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청소년중기와 후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가정의 영향력보다는 학교, 그리고 특히 비행친구의 영향력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노성호, 1993, 2006).

4. 두 이론을 비교 검증한 기존의 연구결과

생애과정이론과 잠재적 특성이론의 우위성을 직접적으로 비교한 외국의 연구결과들은 대체로 잠재적 특성이론보다는 생애과정이론이 경험적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Paternoster and Brame, 1997; Simons et al, 1998). 자기통제와는 별도로 사회유대나 비행친구와의 접촉 등과 같은 환경적 변화가 비행을 지속 또는 중단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그렇지만 일부 연구는 자기통제가 청소년기의 비행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 됨과 더불어 사회유대요인과 비행친구의 접촉도 중요한 설명요인이라고 함으로써 두 가지 이론적 관점을 모두 지지하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한다(Evans et al., 1997; Wright et al., 1998). O′Connell(2003)도 재범예측과 관련해서 잠재적 특성이론과 생애과정이론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잠재적 특성 변인의 영향과는 별도로 생애과정 후기에 나타나는 사회통제가 개인의 범죄적 생활양식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 잠재적 특성이론보다는 생애과정이론이 더 적합하다고 결론지었다.

국내에서 수행된 두 이론을 비교하는 연구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성식(2001)은 Gottfredson과 Hirschi로 대표되는 내적 성향론의 논의보다는 생애과정이론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어렸을 때의 자기통제가 청소년기의 비행을 설명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그 영향력은 사회유대 요인과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같은 성장기의 사회환경의 변화에 의해 매개된다. 그렇지만 이 연구는 종단적인 추적조사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회고적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를 사용해서 분석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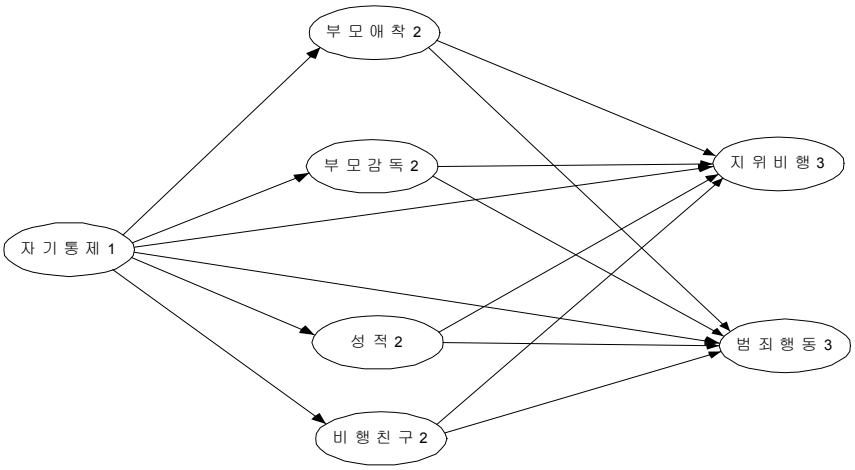
이상문(2007)은 잠재적 특성이론과 생애과정이론을 두 가지의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하나는 연령-범죄곡선의 형태가 초기시작집단과 후기시작집단에서 차이를 보이는가를 비교함으로써 두 이론중에서 어느 것이 더 적합한 가를 비교하였고, 두 번째는 비행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유대의 효과를 비교검증함으로써 두 이론의 적합성을 비교하였다. 저자도 밝힌 바와 같이 미국의 NYS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한 검증이 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전체적인 분석결과는 잠재적 특성이론보다는 생애과정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연령-범죄곡선의 형태가 초기시작집단과 후기시작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비행의 시작시기가 비행의 발달과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이가 된다는 생애과정이론을 지지한다. 또한 비행의 발달에 있어서 가족의 유대가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결과를 보인다. 즉 가족의 유대는 초기시작집단과 후기시작집단 모두의 비행과정에서 변이를 나타내고 있어 생애과정이론의 논의를 지지하고 있다.

Ⅲ.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논문의 일차적인 목표는 잠재적 특성이론과 생애과정이론의 주장 중에서 경험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것들

을 추출하여 비교함으로써 어느 것이 현실적으로 더 적합한가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청소년패널자료를 통해서 검증하는 것이다. 두 이론을 비교하고 검증하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통제요인과 사회유대 등의 환경적 요인, 그리고 비행변인 들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잠재적 특성이론과 생애과정이론의 설명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모형에는 잠재적 특성이론의 주요 변인인 자기통제 변인, 생애과정이론에서는 부모와의 관계, 학교성적,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포함된다. 종속변인으로는 지위비행과 범죄행동을 포함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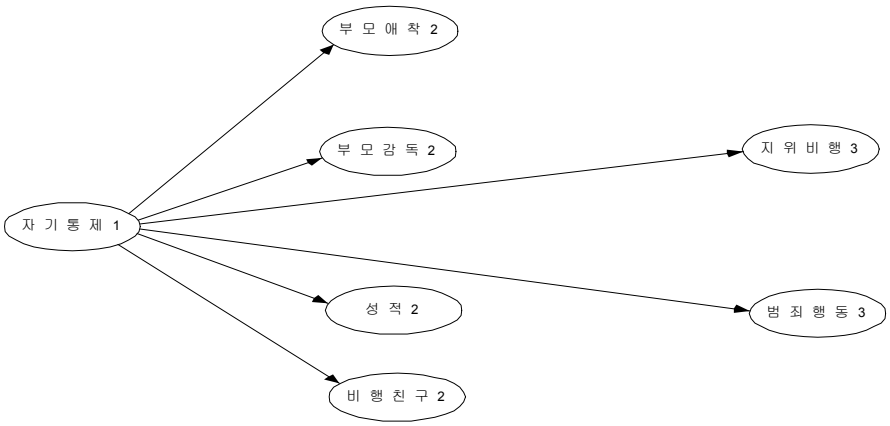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1 : 전체모형

두 이론의 비교 변인들간의 인과적 가 중 . 잠재적 특성이론 자기 가 적 결정 비 을 기 문이 . 연구모형 패널자료 3 의 점을 정 점 연구모형 변인을 . 모형 도의 자기 변인을 두 변인을 막 변인인 비 의 변인을 . 그 변인들간의 간적 성을

게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은 생애과정이론의 주장을 검증하는 연구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1차년도 자기통제가 2차년도의 사회환경변인에 영향을 미치고, 3차년도의 지위비행, 범죄행동 변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정한다. 뿐만 아니라 2차년도의 사회유대 및 비행친구관계 변인이 3차년도의 지위비행과 범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한다.

한편 <그림 2>는 잠재적 특성이론의 주장을 검증하는 연구모형이다. 잠재적 특성이론에 따르면 자기통제는 지위비행과 범죄행동과 같은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애착, 부모의 감독, 학교성적, 비행친구와의 접촉 등과 같은 사회환경변인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그렇지만 사회환경적인 변인이 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사회환경변인과 비행변인간의 관계는 자기통제변인을 통제하면 사라지는 허위상관관계임을 주장한다.



<그림 2> 연구모형 2 : 축소모형

이 한 두 연구모형 3)에 있기 때문에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χ2값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더 적합한 모형을 구분할 수

3) nested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두 모형이 동일한 잠재변인과 동일한 측정변수로 구성되며 한 모형에서 설정된 모든 경로가 다른 모형에도 설정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경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있다(이학식, 임지훈, 2007). 이상의 내용들을 가설의 형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설 1 : 사회적 유대가 지위비행, 범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전체모형은 이러한 영향을 0으로 제약한 축소모형보다 자료를 더 잘 적합시킬 것이다.

가설 2 : 사회환경적 요인은 지위비행과 범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 자기통제요인은 지위비행과 범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가설의 검증결과는 주요 요인들간의 관계에 있어서 잠재적 특성이론이 더 적합한지, 아니면 생애과정이론이 더 적합한지 판별하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1과 가설 2가 지지받으면 잠재적 특성이론보다 생애과정이론이 더 우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설 3은 잠재적 특성이론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개념이다. 가설 3이 지지된다면 잠재적 특성이론이 지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두 이론의 비교 검증은 두 가지 이론 중에서 하나는 맞고 다른 하나를 틀리다는 식의 비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각각 범죄이론은 여러 가지 내용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중의 일부는 지지받을 수도 있고 일부 내용은 지지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초점은 두 이론중의 어떤 것이 경험적 자료에 더 적합하게 나오는가의 상대적 우위를 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가설의 형태로 검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이 가지는 안정성을 검증하고, 청소년의 시기, 즉 비행을 하는 연령에 따라서 사회환경적 요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생애과정이론의 주장을 살펴보기 위해서 초등패널과 중등패널 자료를 모두 사용하며, 3개의 자료에 대해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첫 번째는 초등패널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조사자료를 대상으로 검증하였으며, 두 번째는 중등패널 중에서 중학교 2학년에서 시작하여 고등학교 1학년에 모형을 적용시켜 검증하였으며, 세 번째

는 중등패널 중에서 중학교 3학년에서 시작하여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자료에 모형을 적합시켰다.

다양한 자료에 대해 모형을 비교하는 것은 첫째, 연구모형이 청소년의 나이 차이에 따라서 안정성을 보이는가를 살펴보는 것과 둘째, 청소년의 나이에 따라서 사회환경적 요인, 즉 가정, 친구, 학교의 요인들이 지위비행과 범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2. 연구자료

본 분석을 위해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하고 있는 청소년패널 자료의 이용하였다. 이 패널연구에서는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2003년 조사시작~2008년까지 추적조사)과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청소년들(2004년 조사시작~2008년까지 추적조사) 중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동일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망적 패널조사의 방법으로 추적 조사하여 종단적 패널 데이터를 구축한다. 기본적인 표집방법은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이며, 초등패널의 경우 조사대상은 2004년도 기준 전국(제주도 제외)의 초등학교 4학년 청소년들 중 표본으로 뽑힌 2,949명의 청소년들 및 부모이며, 실제 조사에 성공한 사례는 1차년도에는 2,844명, 2차년도에는 2,707명, 3차년도에는 2,672명이다. 중등패널은 2003년도 기준 전국(제주도 제외)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 중 표본으로 뽑힌 3,697명의 청소년들 및 부모이며, 실제 조사성공 사례는 1차년도에 3,449명, 2차년도에 3,125명, 3차년도에 3,125명, 4차년도에 3,121명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논문은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인과모형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3년간의 조사자료와 중학교 2학년 패널의 4년간의 조사자료를 모두 분석함으로써 이론을 비교한다. 두 패널은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나이에 따른 인과적 영향의 차이를 검증할 수는 없지만, 조사의 시작 연령이 달라서 비행 시기에 따른 차별적인 인과구조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패널자료의 연도별 조사 성공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초

등패널과 중등패널에서는 해마다 조사에서 누락된 사례가 존재한다. 이러한 사례는 결측치로서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는 초등패널에서는 3개년간, 중등패널에서 4개년간 누락되지 않고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만을 포함시켰다. 이와 같이 한번이라도 누락된 적이 있는 청소년을 제외하였을 때 초등패널은 2,607사례, 중등패널은 2,910사례가 조사대상이 되었다.

3. 변인의 측정

측정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이 되는 것은 자기통제변인이다. 일반이론이 발표된 후에 많은 학자들이 자기통제의 개념적 의미에 관심을 가지고 경험적 검증을 위한 자기통제의 측정에 관심을 가져왔다. Grasmick과 동료들(1993)은 자기통제의 6가지 하위차원에 대해서 각각 4개의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된 24개의 척도를 개발하고, 이 척도를 폭력과 사기를 예측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들의 척도는 그 후 자기통제를 측정하는데 많이 사용되었다[4]. 패널자료에서는 자기통제를 6개의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나는 내일 시험이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 그 일을 하고 본다”,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나는 위험한 행동을 즐기는 편이다”,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나는 학교숙제를 제때에 잘해가지 않는 편이다”이며, 각 문항을 역으로 부호화해서 각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가 높음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가정에 관련된 변인 중에서 비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모에 대한 애착과 부모의 감독이다. 부모에 대한 애착은 부모와 자녀간의 정서적 감정적 친밀도를 의미하며, 부모의 감독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정도를

4) 그렇지만 이 척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비판도 적지 않다. 후에 Hirschi도 이를 의식한 듯 자기통제의 개념을 수정하기에 이른다. Hirschi(2004)는 기존의 자기통제 개념을 수정하여 자기통제란 특정행동의 잠재적 비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경향이라고 재정의함으로써 초점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더 광범위한 것으로 변화시켰다. Piquero와 Bouffard(2007)는 이와 같이 새롭게 정의된 자기통제의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여 검증을 시도한다. 이들은 특정 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자기통제의 척도를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새로운 척도가 기존의 태도척도보다 더 우월함을 보여주었다.

의미한다. 부모에 대한 애착의 측정에는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등 3개의 문항을 측정변인으로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모의 감독은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언제 돌아올지를 대부분 알고 계신다”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독이 높음을 의미한다.

학교관련 변인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학교성적이다. 학교성적은 각 과목의 성적을 측정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중등패널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의 성적을 사용하였으며, 초등패널에서는 영어를 제외한 4개 과목의 성적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친구관련변인 중에서 비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비행친구와의 접촉이다.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무단결석, 음주, 흡연, 폭행, 금품갈취, 절도 등 6가지 비행항목을 저지른 친구 친구의 수를 측정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종속변인인 청소년 비행은 지위비행과 범죄행동으로 구분하였다. 지위비행은 청소년들만이 해당하는 비행행동으로서 음주, 흡연, 무단결석, 가출 등 4개 항목으로 측정하였으며, 범죄행동은 협박, 폭행, 금품갈취, 절도 등 4개를 측정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아래 <표 1>과 <표 2>에는 초등패널과 중등패널의 각 잠재변인별 측정변인의 신뢰도를 제시하였다. 잠재변인에 따라서 신뢰도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의 잠재변인은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도를 보이지만, 종속변인인 지위비행과 범죄행동의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범죄현상의 분석에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할 때, 측정모형을 구성함에 있어서 비행이나 범죄의 측정변인을 반영지표로 하는 것이 적합한지 아니면 형성지표로 하는 것이 더 적합한지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5]. 또한

5) 즉 일반적으로 범죄현상의 분석에서 범죄항목들을 다른 척도들과 마찬가지로 반영지표로 사용하는데, 반영지표를 사용할 때는 문항들간의 신뢰도가 높아야 한다. 그렇지만 범죄항목들은 그리 높은 신뢰도를 보이지 못한다. 따라서 형성적 지표로 사용하는 것

일부 범죄학자들은 범죄행동에 대해서 내적 신뢰도를 구하는 것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Wiesner and Windle, 2004).

<표 1> 초등패널 변인들의 신뢰도 검증

변 인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자기통제	.640	.656	.709
지위비행	.370	.446	.508
비행친구	.585	.867	.669
범죄행동	.337	.326	.660
학교성적	.689	.747	.769
부모애착	.680	.756	.805
부모의 감독	.796	.836	.868

<표 2> 중등패널 변인들의 신뢰도 검증

변 인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자기통제	.633	.678	.686	.679
지위비행	.516	.610	.592	.599
비행친구	.829	.877	.723	.747
범죄행동	.593	.605	.500	.487
학교성적	.783	.794	.688	.387
부모애착	.771	.810	.803	.808
부모의 감독	.846	.867	.882	.880

4. 분석방법

자기통제변인, 사회환경변인, 비행변인의 인과관계 구조를 밝히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은 구조모형과 측정모형으로 구성되는데, 구조모형은 이론 및 가설

이 더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을 구성하고 있는 잠재변수와 관련된 모형이며, 측정모형은 외생잠재변인 간의 상관 및 공분산과 외생잠재변인의 관측변인과 관측변인의 측정오차로 이루어진 모형을 의미한다. 이 논문에서는 측정모형보다는 구조모형에 초점을 맞추어 잠재변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프로그램으로는 SPSS 15.0과 AMOS 7.0을 사용하였다.

Ⅳ. 분석결과 및 논의

1. 분석결과

<표 3>에는 초등패널에 대해서 수행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잠재적 특성이론을 나타내는 축소모형(reduced model)과 생애과정이론을 나타내는 전체모형(full model)의 적합도[6]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전체모형은 χ2 값이 3,159.7이며, 자유도가 420으로서 p<.001에서 유의미하다. 또한 축소모형은 χ2 값이 3,179.9이며, 자유도가 428로서 역시 p<.001에서 유의미하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χ2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되면 모형을 기각하게 된다. 그렇지만 χ2 값은 사례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적합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χ2 값 뿐만 아니라 다른 적합도 지수를 고려한다. 전체모형에서 GFI는 .926, CFI는 .899, RMSEA는 .050이며, 축소모형에서 GFI는 .925, CFI는 .899, RMSEA는 .050로서 전반적으로 모형의 적합도는 우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6) 적합도를 평가하는 지표는 절대적합지수와 증분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로 구분할 수 있다. 절대적합지수는 제안모델이 표본공분산행렬을 어느 정도나 예측할 수 있는가를 측정한 것이다. χ^2통계량은 적합도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이 가능하다. χ^2값이 작고, 확률값이 크면 모델이 적합하다고 평가한다. GFI(적합지수)는 모델의 적합도 계수로서 보편적으로 권장되는 수용기준은 .9이상이다. RMSEA(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는 표본크기가 상당히 큰 제안모델을 기각시키는 카이자승통계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적합지수이다. 이 값이 .05-.08의 범위를 보일 때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10이하이면 자료를 잘 적합시키고, .05이하이면 매우 잘 적합시키고, .01이하이면 가장 좋은 적합도라고 한다. 증분적합지수는 제안모델을 기초모델과 비교한 지수이다. CFI(비교적합지수)는 0-1의 값을 가지며, .9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본다.

<표 3> 잠재적 특성이론과 생애과정이론 모형의 비교검증 : 초등패널

경 로	전체모형		축소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자기통제 → 애착	.509 (.043) ***	.411	.519 (.043) ***	.419
자기통제 → 감독	.724 (.057) ***	.406	.739 (.058) ***	.414
자기통제 → 성적	.349 (.035) ***	.325	.350 (.035) ***	.325
자기통제 → 비행친구	-.033 (.012) **	-.071	-.033 (.012) **	-.073
자기통제 → 범죄행동	-.009 (.008)	-.041	-.025 (.006) ***	-.117
애착 → 범죄행동	-.011 (.005) *	-.061		
감독 → 범죄행동	-.010 (.003) **	-.084		
성적 → 범죄행동	.006 (.006)	.032		
비행친구 → 범죄행동	.002 (.011)	.003		
자기통제 → 지위비행	-.007 (.004)	-.066	-.011 (.003) ***	-.107
애착 → 지위비행	-.004 (.002)	-.042		
감독 → 지위비행	-.002 (.001)	-.027		
성적 → 지위비행	.003 (.002)	.026		
비행친구 → 지위비행	.005 (.005)	.021		
χ^2 (자유도)	3159.7 (420) ***		3179.9 (428) ***	
χ^2 차이	20.2 (8) **			
GFI	.926		.925	
CFI	.899		.899	
RMSEA	.050		.050	

* p<.05, ** p<.01, *** p<.001
o 경로에서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모형을 비교 모형의 성을 적 검증 기 χ2 차이검증을 실시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모형들이 서로 nested관계에 있어야 한다. <표 3>의 전체모형과 축소모형은 nested 관계에 있기 때문에 χ2값의 차이를 계산한 후에 자유도의 차이를 감안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 살펴봄으로써 모형의 우수성을 검증할 수 있다.[7] 전체모형과 축소

7) nested 관계에 있는 모형간의 우수성 비교는 χ2 차이검증을 통해 할 수 있다. χ2 차이검증에서 중요한 원칙은 χ2 값은 작을수록 좋고, 자유도는 클수록 좋다는 것이다. 그런

모형의 χ2값의 차이는 20.2이며, 자유도는 8이다. 그런데 유의주순 .05, 자유도가 8일 때 χ2 값이 15.5이기 때문에 전체모형이 축소모형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패널에서 사회적 유대가 지위비행, 범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전체모형이 이러한 영향을 0으로 제약한 축소모형보다 자료를 더 잘 적합시킬 것이라고 하는 가설 1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모형의 비교에서는 잠재적 특성이론을 지지하는 축소모형보다는 생애과정이론을 지지하는 전체모형이 더 우수하다.

사회환경적 요인은 지위비행과 범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지지를 받는다. 범죄행동에 대해서는 애착과 감독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지위비행에 대해서는 4개의 사회환경변인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부모에 대한 애착과 감독이 높을수록 범죄행동은 줄어든다.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지지를 받지만 잠재적 특성이론과 생애과정이론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적합한가를 살펴볼 때에는 생애과정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잠재적 특성이론에서는 자기통제변인을 포함시켰을 때 사회환경적 요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자기통제요인은 지위비행과 범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은 지지받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축소모형을 보면 자기통제변인은 지위비행과 범죄행동에 $p<.001$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만 사회환경변인을 포함시킨 전체모형에서는 자기통제가 지위비행과 범죄행동에 향하는 경로의 유의도가 사라진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통제변인이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생애과정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에는 중등패널에 대한 첫 번째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중학교 2학년이 1차년이고, 고등학교 1학년이 3차년도로 모형에 포함되었다.

두 모형의 적합도를 먼저 살펴보면 전체모형은 χ2이 5,089.8, 자유도 450으로서 $p<.001$에서 유의미하고, GFI는 .892, CFI는 .858, RMSEA는 .060

데 χ2 값과 자유도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모형의 비교에는 χ2 값의 감소가 자유도의 감소를 만회할만큼 충분히 큰가를 고려해야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모형의 χ2값의 감소폭이 자유도 감소를 상쇄시킬만큼 충분히 감소하는 경우 전체모형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지만, 유의미한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간결한 모형을 선호하는 원칙에 따라서 원래 축소모형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이며, 축소모형은 χ2이 5,366.5, 자유도 458로서 p<.001에서 유의미하고, GFI는 .887, CFI는 .849, RMSEA는 .061로서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그리 우수하지는 못하지만, 모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모형의 우수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두 모형의 χ2 값의 차이를 살펴보면 276.7로서 자유도 8에서 p<.001에서 유의미하다. 자유도 8의 감소를 상쇄시킬만큼 χ2 값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전체모형이 축소모형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가설 1은 지지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잠재적 특성이론보다는 생애과정이론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체모형에서 사회환경변인이 지위비행과 범죄행동에 이르는 경로를 추가시킴으로써 감소하는 χ2값의 크기는 초등패널의 경우보다 상당히 크다. 이는 사회환경변인이 지위비행과 범죄행동에 대한 설명력이 중학생의 경우에 초등학생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암시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환경변인이 지위비행이나 범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2는 사회환경변인 중에서 일부만 지위비행과 범죄행동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초등패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만 지지를 받는다. 그런데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초등패널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학교성적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비행에 이르는 경로는 초등패널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중등패널1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그 관계에 강도 역시 상당히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학교성적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지위비행과 범죄행동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성적이 낮을수록 비행친구가 많을수록 지위비행이나 범죄행동을 더 많이 한다. 부모에 대한 애착과 부모의 감독 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은 초등패널과는 달리 대부분 사라지거나 크게 약화된다. 부모에 대한 애착은 범죄행동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 방향이 이론에서 예측하는 방향과는 다르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증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초등패널에서와 같은 논리로 이러한 결과들도 잠재적 특성이론보다는 생애과정이론을 더 잘 적합시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초등패널의 경우와는 달리 자기통제는 전체모델에서 사회환경변인들이 통제된 후에도 지위비행과 범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가설 3이 지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잠재적 특성이론의 주장이 지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5> 잠재적 특성이론과 생애과정이론 모형의 비교검증 : 중등패널 1

경 로	전체모형		축소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자기통제 → 애착	.421 (.037) ***	.339	.429 (.036) ***	.346
자기통제 → 감독	.552 (.046) ***	.342	.555 (.045) ***	.345
자기통제 → 성적	.567 (.047) ***	.375	.590 (.047) ***	.391
자기통제 → 비행친구	-1.214 (.138) ***	-.227	-1.629 (.143) ***	-.308
자기통제 → 범죄행동	-.084 (.017) ***	-.195	-.145 (.014) ***	-.326
애착 → 범죄행동	.021 (.009) *	.059		
감독 → 범죄행동	.008 (.007)	.031		
성적 → 범죄행동	-.017 (.008) *	-.061		
비행친구 → 범죄행동	.023 (.002) ***	.285		
자기통제 → 지위비행	-.420 (.054) ***	-.295	-.719 (.050) ***	-.504
애착 → 지위비행	-.023 (.029)	-.020		
감독 → 지위비행	-.014 (.021)	-.016		
성적 → 지위비행	-.107 (.025) ***	-.113		
비행친구 → 지위비행	.074 (.006) ***	.278		
χ^2 (자유도)	5089.8 (450) ***		5366.5 (458) ***	
χ^2 차이	276.7 (8) ***			
GFI	.892		.887	
CFI	.858		.849	
RMSEA	.060		.061	

* p<.05, ** p<.01, *** p<.001
o 경로에서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표 5> 중등패널 중 교 3 을 1 고 고등 교 2 을 3 분석한 모형 중등패널2)을 . 전체적 <표 5>의 결과 <표 4> . 전체모형 χ2이 5,569.0, 자유도 450으로서 p<.001에서 유의미하고, GFI는 .887, CFI는 .811, RMSEA는 .063이며, 축소모형은 χ2이 6,110.9, 자유도 458로서 p<.001에서 유의미하고, GFI는 .877, CFI는 .791, RMSEA는 .065로서 <표 4>의 중등패널1보다 약간 떨어진다. CFI가 좀 낮지만, 다른 적합도 지수

를 감안하면 모형을 받아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표 6> 잠재적 특성이론과 생애과정이론 모형의 비교검증 : 중등패널 2

경 로	전체모형		축소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자기통제 → 애착	.313 (.028) ***	.307	.324 (.028) ***	.312
자기통제 → 감독	.388 (.036) ***	.273	.416 (.036) ***	.287
자기통제 → 성적	.239 (.028) ***	.247	.265 (.029) ***	.270
자기통제 → 비행친구	-1.136 (.144) ***	-.193	-1.694 (.152) ***	-.281
자기통제 → 범죄행동	-.055 (.012) ***	-.157	-.094 (.011) ***	-.265
애착 → 범죄행동	.008 (.009)	.022		
감독 → 범죄행동	.000 (.006)	-.001		
성적 → 범죄행동	-.008 (.010)	-.023		
비행친구 → 범죄행동	.015 (.002) ***	.255		
자기통제 → 지위비행	-.336 (.042) ***	-.242	-.631 (.044) ***	-.447
애착 → 지위비행	-.002 (.032)	-.001		
감독 → 지위비행	-.011 (.021)	-.011		
성적 → 지위비행	-.160 (.036) ***	-.112		
비행친구 → 지위비행	.111 (.006) ***	.470		
χ^2 (자유도)	5569.0 (450) ***		6110.9 (458) ***	
χ^2 차이	541.9 (8) ***			
GFI	.887		.877	
CFI	.811		.791	
RMSEA	.063		.065	

* p<.05, ** p<.01, *** p<.001
o 경로에서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두 모형간의 χ2 값의 차이는 541.9이며, 자유도의 차이는 8로서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전체모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χ2 값의 감소는 중등패널1보다 훨씬 큰 것이며, 이는 앞의 두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체모형이 축소모형보다 우수함을 보여주며, 가설 1은 지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설 2 역시 부분적으로 지지되고 있으며 이 역시 앞의 두 모형과 유사하다.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범죄행동과 지위비행 모두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성적은 지위비행에 대해서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표 4>와 비교하면 비행친구와의 접촉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표준화 계수를 비교해보면 지위비행에 있어서 비행친구와의 접촉의 영향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 역시 잠재적 특성모형보다는 생애과정이론이 더 적합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가설 3도 지지되는데 자기통제는 전체모델에서 사회환경변인들이 통제된 후에도 지위비행과 범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자기통제가 높을수록 범죄행동과 지위비행은 줄어든다.

2. 논 의

본 연구에서 비교한 세 개의 자료(초등패널, 중등패널1, 중등패널2)에서 가설 1이 모두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형의 우수성을 통계적으로 비교하기위해 잠재적 특성이론의 모형(축소모형)과 생애과정이론의 모형(전체모형)을 비교한 결과 세 경우 모두 전체모형이 축소모형에 비해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자료 모두에서 생애과정이론의 모형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잠재적 특성이론보다는 생애과정이론이 현상을 더 적합하게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우수하다는 표현은 어느 하나의 모형이 옳고 다른 모형을 틀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잠재적 특성이론과 생애과정이론은 각각 다양한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 개의 가설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경험적 분석결과들은 두 이론에서 추출된 가설 중에서 지지하는 것도 있고 지지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따라서 우수하다는 표현은 두 이론 모두 경험적 분석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지지를 받기는 하지만, 잠재적 특성이론보다는 생애과정이론이 더욱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세 개의 자료를 대상으로 한 분석 모두에서 생애과정이론의 모형이 더 우수하다는 결과를 보임으로써 본 연구에서 구성한 설명모형이 다양한 자료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안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가설 1이 전체적인 모형의 적합도에 관한 것이라면 가설 2와 가설 3은

모형의 잠재변인간의 계수에 관한 것이다. 잠재적 특성이론과 생애과정이론의 비교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가설 2이다. 자기통제변인을 통제한 후에 사회환경변인이 지위비행이나 범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두 이론이 직접적으로 비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설 2는 3개 자료에서 부분적으로 지지된다. 즉 변인의 종류에 따라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이다. 잠재적 특성이론에 따르면 자기통제변인을 통제하면 사회환경변인들의 지위비행과 범죄행동에 대한 영향이 모두 사라져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잠재적 특성이론보다는 생애과정이론의 주장이 더 적합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비행에 미치는 자기통제의 영향력은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환경변인을 거쳐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사회환경변인들은 자기통제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자기통제가 지위비행과 범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3은 초등패널에서는 지지받지 못했지만, 두 개의 중등패널에서는 지지되었다. 초등패널에서 자기통제가 지위비행과 범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회환경변인이 포함되기 전에는 유의미하지만, 포함된 이후에는 모두 사라진다. 그렇지만 중등패널에서는 사회환경변인이 포함되어도 유의미하게 남아 있다. 이는 자기통제가 지위비행과 범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초등학교 때는 약하지만 중학교 때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잠재적 특성이론이 부분적으로만 지지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에서 가설2의 검증에 있어서 모형에 따라 지위비행 및 범죄행동에 미치는 사회환경변인의 영향이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지위비행과 범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초등패널에서 애착과 감독이 범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지위비행에는 그렇지 않으며, 중등패널2에서 학교성적은 지위비행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범죄행동에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결과 역시 모든 범죄는 동일한 원인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잠재적 특성이론의 주장보다는 범죄유형에 따라서 그 원인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애과정이론에 더욱 적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지위비행과 범죄행동에 미치는 사회환경변인의 영향은 비행시기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표 3>, <표 4>, <표5>의 비교를 통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2장의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애과정이론은 비행시기에 따라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으며, 어렸을 때는 가정에 관련된 요인이 강한 영향을 미치고 성장할수록 학교요인과 친구요인이 비행을 저지르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본다.

<표 3>의 초등패널에서는 범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부모에 대한 애착, 부모의 감독 등과 같은 가정관련 변인이다. 학교성적과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같은 학교요인, 친구요인은 지위비행과 범죄행동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표 4>와 <표 5>에서 중학생의 비행에 있어서는 가정관련요인의 영향력은 사라지거나 크게 감소하고, 학교성적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 시기와 중학생 시기에 지위비행이나 범죄행동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잠재적 특성이론보다는 생애과정이론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도 어려서는 가정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나이가 들면서 가정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학교와 친구의 영향을 강해진다는 생애과정이론의 예측에 부합한다. 물론 초등패널과 중등패널이 다른 조사대상으로 한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한 검증은 할 수 없다는 한계는 있지만, 비행시기에 따라 비행요인들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반복조사된 하나의 패널자료를 이용해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범죄경력을 설명함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렇지만 상반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생애과정이론과 잠재적 특성

이론을 직접적으로 비교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두 이론을 비교 검증함에 있어서 초점이 되는 것은 범죄의 원인 또는 범죄발전과정의 원인으로서 자기통제라는 개인적 성향을 나타내는 변인의 영향만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회환경적 요인, 즉 가정, 학교에 대한 사회유대, 비행친구와의 접촉등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할 것인가의 부분이다.

청소년패널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잠재적 특성이론과 생애과정이론을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생애과정이론이 경험적으로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이론을 대표하는 연구모형의 적합도의 비교, 사회환경변인이 지위비행과 범죄행동에 미치는 경로계수의 유의도 등을 검증한 결과 생애과정이론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잠재적 특성이론에서 주장하는 내용보다 더 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생애과정이론의 연구모형이 잠재적 특성이론의 연구모형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에 대한 애착, 부모의 감독, 학교성적, 비행친구와의 접촉 등의 변인들은 자기통제 변인을 모형에 포함시킨 후에도 여전히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잠재적 특성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기통제는 여전히 청소년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잠재적 특성이론에서 주장하는 다른 내용들은 경험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두 이론을 비교하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기존연구결과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회환경요인들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도 비행시기에 따라서 차이를 보여, 초등학교 때에는 부모에 관련된 변인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치고, 중학교 때에는 학교와 비행친구에 관련된 변인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 부분에서도 생애과정이론이 지지를 받았다.

잠재적 특성이론보다 생애과정이론이 경험적으로 더 지지를 받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형사정책적으로도 유용한 의미를 지닌다. 잠재적 특성이론의 주장은 비행을 저지르기 쉬운 경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성향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변화를 통한 비행대책은 효과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잠재적 특성이론에 따르면 비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비행을 저지를 수 있는 기회의 감소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렇지만 생애과정이론은 사회유대와 같은 환경적 요인들의 변화를 통해서 이후의 비행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비행에 대한 개입과 처우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이론에 근거한 효

과적인 처우기법의 개발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 아쉬운 점은 좀 더 다양한 자기통제변인의 척도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일반이론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은 정확한 자기통제의 척도를 개발하는데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Arneklev et al., 1999), 이론을 주장한 Hirschi(2004)도 최근 자기통제를 개념을 수정하고 새로운 척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통제 척도를 사용하였지만, 자기통제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척도를 적용하여 분석한다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애과정이론이 잠재적 특성이론보다 더 지지를 받고 있다는 분석결과를 얻었다. 그렇지만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다양한 생애과정이론의 내용들을 그대로 검증한 것이라기보다는 생애과정이론의 주장 중에서 일부 내용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상대적인 적합도를 살펴본 것이다. 따라서 보다 엄격한 검증을 위해서는 생애과정이론을 그대로 설명할 수 있는 분석과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즉 생애과정이론에서 주장하는 다양한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비행의 변화를 분석하고 검증할 수 있는 자료의 축적과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노성호(1993), 「한국의 청소년비행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노성호(2006), “종단적 자료를 이용한 청소년 비행화모델의 검증,”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논총」 22(1) : 1-27

민수홍(2002), “여자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13(1) : 35-66

민수홍(2005), “낮은 자기통제력의 결과로서의 청소년비행과 학교에서의 징계경험,” 「청소년학연구」 12 : 1-25

민수홍(2007),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 패널자료를 이용한 인과성 및 일반성 검증,” 「청소년학연구」 13(6) :

27-47
이상문(2007), “비행 발달과정에 관한 두 가지 관점의 비교 연구: 잠재적 특성 시각과 생애과정 시각을 중심으로,”「형사정책연구」18(3) : 1129-1158
이성식(2001), “청소년비행에 있어서 내적 성향론과 생애과정론의 논쟁에 관한 경험적 연구”,「형사정책」13 : 243-269
이학식, 임지훈(2007),「구조방정식모형분석과 Amos 6.0」, 법문사

Arneklev, A. J., H. G. Grasmick, and R. J. Bursik, Jr.(1999), “Evaluating the dimensionality and invariance of “low self-control”,“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5(3) : 307-331
Baron, S. W.(2003), “Self-control, social consequences, and criminal behavior: Street youth and the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0 : 403-425
Chapple, C. L.(2005), “Self-control, peer relations, and Delinquency,” Justice Quarterly 22(1) : 89-106
Evans, T. D., . T. Cullen, V. S. Burton, R. G. Dunaway and M. L. Benson(1997), “The social consequence of self-control : Testing the general theory of crime,” Criminology 35 : 475-501
Gottfredson, M. R. and T. Hirschi,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lif. : Stanford University Press
Grasmick, H. G., C. R. Tittle, R. J. Bursik, and B. J. Arneklev(1993), “Testing the core of empi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 : 5-29
Hirschi, T.(2004), “Self-control and crime,” in R. F Baumeister & K. D. Vohs (ed) Handbook of Self-regulation: Research, Theory, and Applications. New York : Guilford Press
Loeber, R. and M. LeBlanc(1990), “Toward d developmental

criminology," in M. Thorny and N. Morris (ed) Crime and Justice 12,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Moffitt, T. E.(1993), "Adolescent-limited and life-course 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 : 674-701

Nagin, D. S., D. P. Farrington, and T. E. Moffitt(1995), "Life-course trajectories of different types of offenders," Criminology 33 : 111-139

Nagin, D. S. and R. Paternoster(1993), "Enduring individual differences and rational choice theories of crime," Law and Society Review 3 : 467-96

O'Connell, D. J.(2003), "Investigating latent trait and life course theories as predictors of recidivism among and offender sampl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1 : 455-467

Paternoster, R. and R. Brame(1997), "Multiple routes to delinquency? A test of developmental and general theory of crime," Criminology 35 : 49-84

Patterson, G. R., B. D. DeBaryshe, and E. Ramsey(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 : 329-335

Patterson, G. R., J. B. Reid and J. J. Dishion(1992), Antisocial Boys, Eugene, Ore. : Castalia

Piquero, A. R. and J. A. Bouffard(2007), "Something old, something new : A preliminary investigation of Hirschi's redefined self-control," Justice Quarterly 24(1) : 1-27

Sampson, R. J. and J. H. Laub(1993), Crime in the Making : Pathways and Turning Points Through Life,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Sampson, R. J. and J. H. Laub, 1996, "A life-course theory of cumulative disadvantage and the stability of delinquency," in T. P. Thornberry(ed) Developmental Theories of Crime and

Delinquency, pp 133-161

Simons, R. L., C. Johnson, R. D. Conger, and G. Elder, Jr.(1998), "A test of latent trait vs life-course perspectives on the stability of adolescent antisocial behavior," Criminology 36(2) : 217-243

Smith, T. R.(2004), "Low self-control, staged opportunity, and subsequent fraudulent behavior,"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1 : 542-63

Thornberry, T. P.(1987), "Toward an interactional theory of delinquency," Criminology 25 : 863-891

Thornberry, T. P., A. J. Lizzote, M D. Krohn, M. Farnworth and S. J. Jang(1991), "Testing interactional theory : An examination of reciprocal causal relationships among family, school, and delinquency,"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82 : 3-35

Thornberry, T. P., A. J. Lizzote, M D. Krohn, M. Farnworth and S. J. Jang(1994), "Delinquent peers, belief, and delinquent behavior : A longitudinal test of interaction theory," Criminology 32 : 47-83

Warr, M.(1998), "Life-course transitions and desistance from crime," Criminology 36(2) : 183-216

Wiesner, M. and M. Windle(2004), "Assessing covariates of adolescent delinquency trajectories: A latent growth mixture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3(5) : 431-442

Wright, B. R., A. Caspi, T. E. Moffitt, and P. A. Silva(1999), "Low self-control, social bonds and crime: Social Causation, social selection, or both?" Criminology 37 : 479-514

Wright, B. R., A. Caspi, T. E. Moffitt, and P. A. Silva(2001), "The effects of social ties on crime vary by criminal propensity: A life-course model of interdependence," Criminology 39 : 321-351

An Test of Life-course theory vs. Latent Trait Theory on Juvenile Delinquency using Korean Youth Panel Data

Noh, Sung-Ho
(Professor, Department of Law and Public Administration, Jeonju University)

This research investigate the relative superiority in explanatory power of factors associated with latent trait and life-course models of criminal offending, that provide contrasting interpretation of explanation of juvenile delinquency. Korean youth panel data were used to test hypothesis derived from the two theoretical perspec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s were used to investigate to what extent self-control scales and social bond, and affiliation with delinquent peers predicted status offenses and criminal behaviors of youth. The results largely supported the life-course theory. Self-control in 1st wave decreased attachment to parents and supervision of parents, school grades, and increased affiliation with delinquent peers in 2nd wave. And some of attachment to parents and supervision of parents, school grades, and affiliation with delinquent peers in 2nd wave had significant effect to status offense and criminal behavior in 3rd wave. The effects of social bond to family became weaker, but the effect of social bond to school, and affiliation to delinquency peers became stronger, as youth is getting older. This results also considered to support the life-course theory.

주제어 : 생애과정이론, 잠재적 특성이론, 청소년 비행, 종단적 분석
Keywords : life-course theory, latent trait theory, juvenile delinquency, longitudinal analysis